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회의

시기: 2011년 12월 7-10일 / 장소: 경기도 수원 (라마다 프라자 수원)

주최: 문화재청, 경기도, 수원시

주관: 유네스코 본부(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외교통상부

12/7(수)

## 1. 개회식 (10:00-11:10 / 그랜드볼룸 3F)

### ● 개회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강상규 팀장의 소개와 함께 김찬 문화재청장의 개회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회의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에 대한 환영 인사와 함께 김찬 문화재청장은 2012년이 세계유산협약 채택 40주년임을 상기시키며 세계유산제도의 의의를 언급하였고, 이번 정기보고회의가 그 시스템을 검토하는 절차이자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아시아 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하여 세계유산센터와의 협력에 열의를 갖고 있음을 표명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사무총장은 참석한 귀빈에 대한 환영 인사와 함께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가 기존에 등재된 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점검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한편으로는 수원의 세계유산 화성과 수원에 위치한 삼성과 같은 기업의 사례를 들며 세계유산이 도시발전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 환영사

이어진 환영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회의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올해로 14년이 된 수원화성을 사례로 들며 수원시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열의를 강조하였다. 각국의 정기보고가 다양한 협력 관계를 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원시장은 환송 만찬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다음으로 Feng JING 세계유산센터 아태지역 과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귀빈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그는 한국의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지역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세계유산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수원의 문화유산이 한국의 건축 문화 등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양한 참가국들에게도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더욱 탁월한 유산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협약의 성공은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커뮤니티, 정부 기관들, 세계유산 담당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2012년 4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유산협약의 장기적 미래 전략을 위한 다양한 코멘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에 채택될 행동강령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 및 주최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환영사를 마무리하였다.

- **전체 회의: 세계유산 정기보고 소개**

**Feng JING**, 세계유산센터 아태지역 과장

전체 회의의 첫 번째 발표는 세계유산센터 아태지역 과장인 Feng JING의 세계유산 정기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가 강조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략적 목표는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성 제고, 세계유산 보존 강화, 당사국들의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공 인식 증진,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의 다섯 가지였다. (5C-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 Building, Communication, Community)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유산협약을 따르는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아시아 28개국, 태평양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36개의 세계유산 중 205개의 유산이 아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아태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세계유산 리스트를 언급하고 세계유산 보존의 주요 이슈들로서 난개발과 인프라 구축 문제, 관리와 법적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존 회의에서 도출되었던 중요한 함의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재확인과 기존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간결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점들이 제 2차 정기보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원 회의의 목적이 정기보고 활동의 사전 결과들을 점검하고 2012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소개될 지역별 행동강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2. 전체회의 (11:30-13:00 / 그랜드볼룸 3F)**

- **정기보고 질문서의 결과보고**

**Kaori KAWAKAMI**, 세계유산센터 아태지역 전문관

KAWAKAMI 전문관의 발표는 정기보고 회의를 위해 사전에 실시되었던 질문서의 결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했다. 제 2차 정기보고는 166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서(SOUVs) 초안의 검토, 41개국이 참여한 섹션1과 31개국의 198개 유산을 다른 섹션2로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 질문서 관련 정기보고, 19개국의 106개 유산 중 96개 유산 목록에 대한 재확인 범위까지 포함했다. 그 결과, 165개의 SOUV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제출되었으며, 온라인 질문서 역시 41개국 198개 유산에 관한 답변이 모두 제출되었다. 그러나 유산목록에 대한 재확인의 경우 2011년 12월 1일 기준 96개 중 6개만이 제출되어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국가들의 제출을 독려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회의에 대한 코멘트**

**Jane HARRINGTON**, ICOMOS 위원장

다음으로 자문기구 ICOMOS의 HARRINGTON 위원장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위원장은 SOUV의 초안이 모두 제출되었다는 것과 정기보고와 관련된 섹션 1,2 역시 모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언급하였다. 위원장은 또한 세계유산 잠정목록이 세계 유산 목록과의 균형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 강조하며 ICOMOS가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아태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중국 실�크로드와 수자원 관리에 대한 테마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위원장은 유산의 관리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ICOMOS 역시 필요한 자원 모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올바른 세상**

**Timothy BADMAN**, IUCN 세계 유산 프로그램 위원장

BADMAN 위원장은 IUCN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발표를 시작하였다. IUCN은 1948년 이래 160개국 이상의 참여 및 다양한 정부 기관과 NGO가 자연의 온전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로서 지식-> 행동 -> 영향 -> 지식의 순환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산 협약이 유산보존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라 언급하며, 아태지역에서 6년 내에 89개의 유산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25개가 태평양 도서국가일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상호 반응하는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국가적인 산업 차원과 정부 차원의 접근 모두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는 관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트레이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 **트레이닝에서 역량 발전으로**

**Gamini WIJESURIYA**, ICCROM 프로젝트 매니저

다음으로 이어진 발표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WIJESURIYA는 역량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ICCROM과 IUCN이 ICOMOS, 세계유산센터 및 다른 많은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세계 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를 아우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2001년 국제 트레이닝 전략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주요 이슈들이 부상함에 따라 다른 보존 상태에 관한 보고서(SOC)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미래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는 SOC 보고서의 어떤 영역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주요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해야 할 지 설명하며, 단순한 트레이닝에서 '역량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량은 현장 전문가, 유관 기관, 커뮤니티 모두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3. 전체회의 (14:30-18:00 / 플라자홀 2F)**

**의장: Imran AHMED**, 방글라데시 산림보존과 보좌관

- **Session 1**

- 1)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역 사무소 대표**

첫 질문자는 자카르타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 대표이었다. 그는 당사국이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JING 과장은 진행되고 있는 세션에서의 아이디어는 모두 행동강령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DINGWALLL 국제자문관은 아태 지역이 전체 세계유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을 재차 언급하며 아태지역의 유산 보존관리를 차별화하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라고 덧붙였다. 한편 KAWAKAMI 전문관은 행동강령이 유네스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참가국들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며 참가국

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2) Chahryar ADLE 국제자문관

이어서 ADLE 국제자문관은 30년 전과 오늘날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있어왔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유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려는 국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핵심지대, 완충지대, 경관지대를 모두 포함하는 세계유산에서 포괄적인 관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러한 지역에서 기하급수적 인구증가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경우, 행동강령이 제대로 적용 및 집행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에서 온 대표는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핵심지대의 주요 거주 지역에 대한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함께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 3) 인도 국가대표

다음으로 인도 국가대표는 현장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 2차 정기보고에서는 어떤 국가가 재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WIJESURIYA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아태지역의 3-4개 되는 하위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고 밝혔고 또한, 지명 과정 자체에서 이미 관리계획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유럽의 70% 정도는 이미 모든 현장에 대한 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의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별 관리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도 국가대표 참가자는 정기보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각국의 현장 관리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재차 물었다. 그는 인도나 다른 국가에서 현장 관리 계획이 한 사람의 계획이나 아웃소싱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SAMBANDAM 국제자문관은 동의하는 의견을 표하며 인도의 국립공원의 경우 재정 지원이 모두 행동강령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관리 계획을 위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WIJESURIYA 프로젝트 매니저는 위의 논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이드와 프로세스를 정립해왔다고 밝혔고 BADMAN 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하여 번역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커뮤니티나 관련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특정 유산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4)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는 그간 많은 과정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세 번의 지역회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관리 문제를 각 현장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별도의 유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2가지의 관리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세계유산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이 프로그램이 각 당사국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5) Kai Ube Prasad WEISE 국제자문관

다음으로 WEISE 국제자문관은 세션2의 보고서 작성에서 직면한 어려움으로 연속 유산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즉, 그는 행동강령 구성에 있어 한 지역 내에 여러 유적이 존재하는 연속 유산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하여 HARRINGTON 위원장은 기존에도 관리계획을 구성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정기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별 유적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담당자 조효상 주무관도 동의하며, 이외에도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커뮤니티 참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하의 하향식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DINGWALLL 국제자문관은 연속 유산을 하나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연속 유산을 관리하는 별도의 총괄 기구가 있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지역 행동 강령 중 하나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허브를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아태 지역에 국제적인 트레이닝 기관이 구체적인 지역적 이슈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적절한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그는 커뮤니티 참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들이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 **6) 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 대표는 하위 지역간의 협력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KAWAKAMI 전문관은 각국의 재정적 문제를 예로 들며, 각국이 개발해놓은 이웃 국가들에 자문을 구하고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JING 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에 위치한 여러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이탈리아 간에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유산끼리 서로의 경험과 문제점을 공유한 바 있고 그 결과,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음을 설명하며, 다른 국가간에도 충분히 서로 협력할만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KAWAKAMI 전문관은 재차 동의하였다.

WIJESURIYA 매니저는 또한 KAWAKAMI 전문관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국의 경우 현장 관리를 위해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바 있다고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와 위기 관리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었고, 아태지역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열렸다고 설명하며 각 당사국 및 여러 기관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태지역 고유의 시스템을 구축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HARRINGTON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혁신적인 트레이닝 방법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킹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전문가를 초대하거나, DINGWALL 국제자문관이 제기한 것처럼 허브를 기획해서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 **7) 파키스탄 국가 대표**

다음으로 파키스탄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자국에서 유산 지역 담당이 각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두된 지역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중국에 하나의 센터가 있긴 하지만, 아태지역 전체를 위한 트레이닝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덧붙여 ADLE 국제자문관은 연속유산이나 일반 유산 등 무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관리 계획 수립을 모색하는 동시에 공통의 목표

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필리핀 대표는 각 유산을 맡아 관리하는 현장 담당자들을 직접 만난 경험이 매우 유용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현재 필리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 Session 2

### 8) 필리핀 국가대표

잠깐의 휴식 후 이어진 회의에서 의장의 요청으로 필리핀 대표는 자국에서 실시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지정된 계단식 논에 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ICOMOS 등 이탈리아 대표단이 필리핀을 방문한 하여 이탈리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고, 이후 2009년 이탈리아를 방문한 필리핀 대표단은 실제로 그 현장을 방문하여 유사점을 발견하고 보존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BADMAN 위원장은 지역 관리와 이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각국의 접근 방식을 존중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필리핀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지역적인 접근 방식들이 다른 국가에 여러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세계유산센터 차원에서 여러 좋은 선례를 파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덧붙여 IUCN의 주최로 제주에서 '그린 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알리며 관리가 잘 된 유산 지역을 '그린 리스트'로 지정하여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9) Sathyakumar SAMBANDAM 국제자문관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추가 발언을 요청한 의장의 권고에 따라 SAMBANDAM 국제자문관은 인도의 경우를 언급하였다. 인도에서는 자연 유산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때때로 특별팀을 파견해서 국립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그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파악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하나의 평가위원회가 문서들을 평가하고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 10) 인도 국가대표

다음으로 인도 국가대표는 정기보고 중 다시 재지명 되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KAWAKAMI 전문관은 유산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3-4년 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기보고의 결과를 참고하여 단순히 완충지대를 변경하는 수준에서부터 유산에 대한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재지명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JESURIYA 매니저는, 현재 변경사항이 있어서 재지명이 필요하다면 권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유예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확정된 바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ADMAN 위원장은 당사국의 규정을 보면 당해 년도 최대 2개의 지명을 할 수 있으며, 몇몇 경우 쿼터를 줄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자문기구에서 특정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하였다.

### 11) 유네스코 프놈펜 지역사무소 대표

다음으로 유네스코 캄보디아 지역사무소 대표는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꺼냈다. 그는 BADMAN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고 해당 유산이 위치한 현지의

지역적 이슈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 지역별로 좀 더 효과적인 행동강령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의의 보고서 안에 하위지역간 서로 공통되는 주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WEISE 국제자문관은 지역적인 전략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고 각각의 유산에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리계획,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현장 관리인과 당사국 사이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국가의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는 현장 경험의 교류 및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의 논의에 대해 유네스코 하노이 지역사무소 대표는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이번 회의의 분석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하위지역 및 국가 차원의 연계가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역시 궁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JING 과장은 이에 대하여 이번 정기보고의 경우 처음부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기에 자료가 모든 국가에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행동강령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계획에서 공통의 이슈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그는 위험에 처한 유적지를 다섯 개 정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강구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KAWAKAMI 전문관은 국가차원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하위지역 차원의 이슈 역시 분명히 존재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중복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느 이슈가 국가적 차원이고 어느 이슈가 지역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당사국에서 스스로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WIJESURIYA 매니저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사국들은 추가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다뤄져야 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 유산 지역 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유산 차원의 전략 역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12) 중국 국가대표

이어진 논의에서 중국 대표는 2차 정기보고 과정의 세가지 작업(SOUV 작성, 설문조사, 지도정보 반영)이 정부차원에서 유산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중국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트레이닝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지역적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하면서 중국대표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산이 자연변화, 건설, 개발,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국가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리체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이 실제 행동강령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RRINGTON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국가 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회의는 당사국들이 자체적인 관리와 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정보를 취합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 13) 방글라데시 대표

방글라데시 대표는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유산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INGWALLL 국제자문관은 이번 회의의 기본적인 관점은 아태지역의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를 수합하고 분류하는 작업이었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보고서의 시작은 개별 유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별 유산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차원의 이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동의 지역적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행동강령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속적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해석하여 정기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개별 유산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14) 부탄 국가대표

부탄 대표는 자국이 아직까지 등재된 세계유산이 없으나 워크숍을 통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부탄 국가,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유산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명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하여 BADMAN 위원장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은 단순 등재가 아닌 보다 포괄적으로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진행시키고 이행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사국의 필요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WIJESURIYA 매니저 역시 BADMAN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또한 IUCN이 발간한 역량강화 리포트가 곧 배포될 것임을 밝히며 내년부터 4년간 진행될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가 세계유산등재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논의에 대해 일본 대표는 다시 한번 DINGWALLL 국제자문관이 얘기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차원의 행동강령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자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에 지역의 공동 사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15)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대표

방콕 사무소의 대표는 다른 지역의 행동강령이 이루어지는 현황과 유산 지역 자체 내에서 발견되지 못한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유네스코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있을 것이며, 역량강화를 위하여 책정된 기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JING 과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것은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강조하며, 유네스코에서 이미 웹 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국가별로 제출한 설문지가 모두 웹 사이트에 등록되어 공유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장 사무소 모두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WAKAMI 전문관은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유네스코현장사무소는 각 당사국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 16)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DINGWALLL 국제자문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인도네시아 대표는 지역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공통의 이슈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쓰나미와 같은 큰 재난을 자주 겪는 자국이 자연재해 이후의 복구 방안과 관련하여 이 경험을 오히려 수입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ENGELHARDT 국제자문관은 지역 내 공동의 이슈가 필요하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한편으로 새로 부상한 '위기 관리'에 대하여 최근 쓰나미, 지진, 태국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재난이 닥쳤을 경우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 복구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보고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통합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커뮤니티 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명 하달식 방식에서 벗어나 하의 상달식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현지 커뮤니티들로 하여금 세계유산 모니터링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그 해당 커뮤니티의 우려사항들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대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한편으로 그는 유산 등재가 문화 및 환경 다양성에 기여를 하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잠정목록에 있거나 후보지로 등록되어 있는 유산들을 미리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한다면, 세계유산센터가 전 세계의 유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핵심에도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17) Feng JING, 세계유산센터 아태지역과 과장

논의에 이어서 JING 은 미래 행동강령을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5C-신뢰성, 보존,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 Building, Communication, Community)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실질적으로 기존 방식을 대로 유산을 보호하고 제도적 전문적인 역량강화 활동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아시아 저개발국가와 태평양 지역의 6개 도서 국가를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트레이닝 활동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교육도 언급하였다.

## 12/8 (목)

### 1. 지역별 그룹회의 (9:00 - 13:00 / 14:30 - 18:00)

#### ●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플라자홀A 2F)

**의장: Abdisafikhan RAKHMANOV, 유네스코 타지키스탄 국가위원회 사무 부 총장**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룹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를 의논하며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적 기반을 갖춘 트레이닝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이 거론되었다. 특히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유산 지역의 현장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 내내 실제 행동강령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데 집중적인 역할을 맡은 KAWAKAMI 전문가 역시 역량강화와 관리 이슈와 관련하여 관광산업 관리나 유산 지역 주변의 발전 압력에 대한 조치 방안 역시 논의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논의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의장의 제안에 따라 하위지역별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각국의 도시 발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 **남아시아 (플라자홀B 2F)**

**의장: Sathyakumar SAMBANDAM** 국제자문관, 인디아 야생동물 협회

의장은 전날의 회의와 문서를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요약하며 회의를 시작하였다. 작업 문서의 핵심은 지역적 차원에서 현지, 국가의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었다. 따라서 각국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 지역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지역적 시각에서 각국의 사례들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회의는 작업 문서를 차례대로 짚고 넘어가며 이를 요약하고 이슈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잠정목록, 법 체계, 영향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작업 문서에 나와있는 여러 통계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이후 각 당사국 대표들이 자국의 최근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만한 주제를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 **동남아시아 (오크룸 2F)**

**의장: Retno SURATRI**, 인도네시아 산림보호 및 자연보존과 국장

동남아시아 그룹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기보고의 핵심이기도 한 5C-신뢰성, 보존,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 Building, Communication, Community)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다섯 개의 주제를 문제점, 우선순위, 행동강령과 곧바로 연관시켜 논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바로 도표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과 관련해서 잠정목록의 OUV를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역적 차원의 워크샵이나 현장의 관련 기관을 충분히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이 행동강령으로 논의되었다. 보존(Conservation)을 위해 유산지역에 가해지는 발전에 대한 압력을 극복할 방안이 논의되었고,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위기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도 지속되었다.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측면에서는 특히 자금 마련이나 위기 관리와 같은 이슈에 대한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여러 세계유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자료 및 결과 등을 공유할 것을 행동강령에 포함시켰으며 커뮤니티(Community)를 위해서는 세계유산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 **동북아시아 (보드룸 2F)**

**의장: Kazuhiko NISHI**, 일본 문화청 문화유산 전문관

의장이 첫 번째 초안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보며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적 이슈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둘 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유산보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교육 기회 및 여러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또한 거론되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의 참여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리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유했다.

## 2. 특별발표 (14:30 – 16:00)

**의장: Wei TONG, 중국 세계유산청**

**한국의 세계유산 모니터링 사례 발표: 조효상 주무관,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다음으로 한국의 세계유산 모니터링 결과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모니터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정기보고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발표자인 조효상 주무관은 한국의 보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면서 문화재청이 자연 유산을 포함한 모든 등재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조 주무관은 유산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전자 행정 시스템을 소개했다.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을 구축함으로써 어떻게 여러 활동들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 모니터링 지표로서 재료, 경관, 경계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조 주무관은 특히 계획 단계에서 문화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주무관은 이번 정기보고와 연관해서도, 세계유산의 활동과 계획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러한 점들이 있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 ● 질의응답

ENGELHARDT 국제자문관은 문화재청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조효상 주무관은 지방 정부 산하 현장 관리인들로 구성된 내부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산 관리 시스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도 대표는 모든 유산을 위해 GIS 하나의 시스템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GIS는 문화재청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세계 유산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HARRINGTON 위원장은 영향 평가가 개발의 매우 이른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니터링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특정한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년 내로 5개년 국내 평가 시스템과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DINGWALLL 국제자문관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모니터링 사례를 들어 이러한 자연 유산의 경우 '바이탈 사인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매우 섬세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시스템 역시 이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 대표는 지표가 특정한 바이탈 사인 목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유산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보편적 가치'와 같은 몇몇 지표들이 2001년 이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는 2007년 제주도가 등재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히며, 세계유산협약에 부합하는 지표들을 더욱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BADMAN 위원장은 또한 GIS가 공개적으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 및 GIS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는 어떠한 공공부문 기관도 GIS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공공 부문 자체적으로 정보의 타당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BADMAN 위원장은 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 대표는 아직 10개의 유산에 대해서 2차시 까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GIS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스템 자체는 6년간 개발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및 웹사이트 디자인 회사, 문화재청, ICOMOS 한국 위원회 또한 참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다.

## 12/9 (금)

### 3. 전체회의: 오전 (9:00 – 13:00 / 그랜드볼룸 3F)

#### ● Session 3: 권고 채택과 행동강령 초안

의장: **Abdisafikhan RAKHMANOV**, 유네스코 타지키스탄 국가위원회 사무 부 총장

#### 1)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발표: **Natalya TUREKULOVA**, ICOMOS 카자흐스탄 국가위원회 위원장)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룹에서 주요 이슈로 꼽은 것은 관리, 역량 강화, 지명 그리고 지역적 협력의 4가지 사안이었다. 각 사안에 대하여 세부사항과 지역별, 국가별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관련 행위자와 필요한 자원 및 기간에 대해서도 구성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초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관리 이슈에서는 관리 계획, 보존, 복원, 재건축, 모니터링과 같은 세부사항이 언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적 행동 강령으로써 이란에서 1차 하위 지역 워크숍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보존, 교육, 통역, 방문객 관리, 위기 관리, 모니터링이 세부사항으로 거론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적으로 번역 툴킷, 단기 코스, 자원 관리 등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육 커리큘럼에 이러한 툴킷을 소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지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연속, 접경 지역 유산과 자연 유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적 협력과 관련하여 티무르 건축의 보존에 대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국 담당 부서와 현장 관리인 간의 네트워크와 현재의 법 체제 이행에 있어 다양한 경험의 교류 역시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이를 위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역적 노력과 더불어 정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의견 및 제안사항

HARRINGTON 위원장은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발표에서 지명문제를 거론한 것이 좋았다고 말하면서 최근 그 역할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트위터나 기타 SNS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BADMAN 위원장 또한 매우 좋은 발표였

다고 말문을 열면서, 다만 툭킷과 번역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논의되어야 구체적인 이행에 보다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WIJESURIYA 매니저 역시 이 그룹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INGWALL 국제자문관은 '허브'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모든 국가들이 인터넷 망에 동일한 수준의 접근 용이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킹과 정보교류를 오직 인터넷 망이나 소셜 미디어 등의 방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기에 다른 형태의 네트워킹 방안 역시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 남아시아 (발표: Radhika DUHUMAL, 인도 고고학자)

남아시아 그룹은 지명, 관리, 역량강화를 주요 이슈로 논의하였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지명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자연유산과 문화 유산 간의 균형을 위해서 하위 지역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잠재적인 세계 유산과 관련하여 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관련 주제들을 찾아 분석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주제에서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로서 현지의 여러 상황과 사회적, 문화적 이용, 건물과 개발, 교통수단과 사회기반시설, 오염, 자연재해, 생태 자원의 이용 등이 거론되었다. 다음으로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참여, 교육, 위기 대처, 방문객 관리, 보존 등이 다루어졌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교육의 확대와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세계 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시작,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ICCROM 트레이닝 매뉴얼 배포, 개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유네스코 권고의 촉진, 방문객 관리를 포함한 관리 계획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법 체계의 공고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관리 단계에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혹은, 다양한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의견 및 제안사항

BADMAN 위원장은 구체적인 국가별 기준을 제시한 것이 좋았다고 평가하며, 관리 계획 단계에 좀 더 많은 공공 부문을 참여시키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WIJESURIYA 매니저는 BADMAN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특히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나열한 것이 좋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존하는 네트워킹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HARRINGTON 위원장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간의 균형 및 네트워킹에 대한 언급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이러한 논의들이 하위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의 의의를 강조했다. 다만 여러 매뉴얼의 배급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DINGWALL 국제자문관은 위기 대처에 대한 논의가 모든 유산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ICOMOS와 ICCROM이 협력하는 가운데 자연유산과 문화 유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BADMAN 위원장은 이미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합동 매뉴얼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WIJESURIYA 매니저는 이미 기존에 열린 일부 워크숍에서 이 매뉴얼이 사용된 바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또한 WEISE 국제자문관은 ICOMOS가 과학 위원회를 갖고 있기에 이미 전문가 네트워킹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기 관리 차원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의 이러한 트레이닝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3) 동남아시아 (발표: Kerya SUN, APSARA 캄보디아 국가위원회)

동남아시아 그룹의 발표는 5C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뢰성(Credibility),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with Education), 커뮤니티(Community)의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한 행동강령이 일목요연하게 언급되었다.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잠정목록에 대하여 지역적 차원의 워크숍이 열려야 한다는 것, 잠정목록 내의 접경 유산에 대해 공동의 이슈를 발굴하여 협력을 도모하자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보존과 관련해서도 SOUV에 바탕을 둔 관리 계획의 검토와 관리 계획 이행에 대한 시한 설정, 세계 유산에 대한 외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과 HIA의 참여 권고,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이 거론되었다.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당사국 대표들에게 관리 계획을 포함한 비준 과정, 예산, 위기 평가, 모니터링, 재난 후 복구 작업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세계유산의 보호와 외부 압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워크숍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행동강령도 발표되었다. 또한 유네스코와 당사국들 간에 여러 좋은 선례를 권고하고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커뮤니티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방안, 관리 계획에 실제 지역 커뮤니티의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자는 방안, 현장 관리인과 지역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증진시키는 협의 프로토콜 마련 역시 논의되었다.

### 의견 및 제안사항

WIJESURIYA 매니저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논의에서 권고 형태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의 행동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SOUV를 바탕으로 한 관리 계획의 검토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HARRINGTON 위원장 역시 SOUV에 대해 언급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것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BADMAN 위원장은 자연 유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있었던 점과 선례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화, 자금 마련, 역량 강화와 같은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INGWALL 국제자문관은 특히 5C를 통한 접근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견제시가 많았던 반면, 그 방안에 대한 접근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DLE 국제자문관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비슷한 주제들을 하나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면 훨씬 간결 명료한 행동강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4) 동북아시아 (발표: 조효상 주무관,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동북아시아 그룹의 발표는 자금 조달 문제, 부적절한 도시개발, 관광 산업,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모니터링, 비준 과정에 대한 협력적 접근, 관리 등을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우선적으로 자금 마련과 관련해서는 유산 관리 자체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과 이미 마련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산 책정과 자금 마련에 대한 별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적절한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완충 지

역에 대한 범위 지정의 명료화와 유산 영향 평가 및 광산업과 같은 자원 추출이 지닐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의 영향에 대한 지역별 케이스 연구를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관광 산업이 가져오는 이점에 대한 평가 및 관광 산업의 계획을 위한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워크숍 및 모니터링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보다 큰 의미의 자연재해를 고려하며 공동의 자연재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특히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여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명 과정에 대한 협력적 접근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공통의 사안에 대해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자는 행동강령이 제시되었으며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선례들을 함께 연구하고 인턴십이나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었다.

### **의견 및 제안사항**

HARRINGTON 위원장은 재정 마련에 대한 언급이 흥미로웠다고 밝히며 완충 지역과 관련해서 비행기로 인한 유산 지역 근처의 소음 및 오염의 심각성을 사례로 들기도 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이 갖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지역적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BADMAN 위원장 역시 충분한 예산마련은 모든 유산의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광산 산업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압력에 대해 언급하며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례를 꼽았고, 기후변화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IJESURIYA 매니저는 역량강화에 대해 언급하며 현장 관리인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 자체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위기 관리 측면에서 하위 지역 차원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을 특히 강조했다.

방글라데시 국가대표는 다른 지역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함께 다루어진 것 같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DINGWALL 국제자문관 역시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들이라고 평가하며, 그 중에서도 약간은 생소한 '유산 영향 평가'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 평가가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가이드 라인을 공유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1. 전체회의: 오후 (16:00 – 17:45)**

**의장: Joycelyn MANANGHAYA**

### **의견 및 제안사항**

ADLE 국제자문관은 보존의 행동강령 중 첫 영어와 불어 법안을 지역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하여 유네스코 카자흐스탄 사무소 대표는 아이디어의 맥락이 지역 언어로 쓰여진 내용을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BADMAN 위원장이 짧게 이 초안이 매우 훌륭한 작업이라고 평가했고,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각 하위지역별 이슈들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WIJESURIYA 매니저가 동의하며 이 초안의 모든 행동강령은 각 당사국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의 한 참석자는 용어의 통일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의장은 짧은 시간 안에 마련된 초안이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추후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효상 주무관은 완충 지대에 대한 적절한 평가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제기했다. 이에 의장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며, 지역적 이슈의 기준으로 순서대로 진행하자고 말하였다.

## 1) 보존

말레이시아 대표는 '법 체계의 개발'에 '잠정사안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자문관 ENGELHARDT는 효과적인 관리 계획 부분에서 '지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효상 주무관은 기후 변화 관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GWALL 국제자문관은 법안 개선과 이행과 관련한 행동 강령에서 현장 관리인들을 위한 법 이행의 역량 강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BADMAN 위원장은 선례를 활용하자는 것과 광산 산업에 대한 국제 표준 역시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WEISE 국제자문관은 법안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카테고리에 분류할 지 조금 더 논의 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장 또한 카테고리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유산의 사회적, 문화적 이용이 '보존'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HARRINGTON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의 과정에 보존과 관련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맥락을 설명하였다. 한편 인도 국가대표는 주제별 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WIJESURIYA 매니저 역시 동의했다.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역사무소 대표는 지역적 이슈에서 '개선하다'는 단어 자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조효상 주무관은 위기 관리 및 재난 감소 관리 행동강령에서 유산의 취약성 측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HARRINGTON 위원장은 예산 계획과 관리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INGWALL 국제자문관은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어느 주체가 이를 이행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역사무소 대표도 동의하며 국가 담당 부서가 반드시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첨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장은 이란의 워크샵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이란 대표는 이 워크샵이 '역량강화'로 분류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 2) 역량강화

조효상 주무관은 역량강화와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련, 선례를 참고하여 인적 교류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언급되었다고 전했다. 중국 대표 역시 예산 계획과 관련하여 짧게 언급하였고,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의 한 대표는 역량강화에서 여러 가지 센터들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당사국 간의 활용 정도를 어떻게 파악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WIJESURIYA 매니저는 글로벌 역량 강화 구축 전략과 관련하여, 센터 중 하나는 중국에 위치해 있으며, 역량 구축과 관련된 정기보고 노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EISE 국제자문관은 재난 복구와 관련하여 재난 '위기' 감소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역사무소 대표는 단기 코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ADLE 국제자문관은 역량강화에 대한 단기 코스라고 수정하면 될 것이라 설명했다. KAWAKAMI 전문관은 지역 이슈 부분에서 역



량 구축과 관련하여, 단기 코스를 교육 프로그램 하위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툴 키트' 대신에 '참고자료 키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던졌다. 한편 또 다른 참가자는 프로그램, 자원 이외에 왜 '지명 준비' 항목이 역량강화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SAMBANDAM 국제자문관은 이 아이디어가 '지명'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밝히며 몇몇 당사국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KAWAKAMI 전문관은 이를 '비준' 위한 전문지식 개발로 바꾸는 것은 어떠할지 제안했다. 조효상 주무관 역시 KAWAKAMI 전문관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명'을 5C와 함께 별도의 주제로 분류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 3) 신뢰성

유네스코 프놈펜 지역사무소 대표는 잠정목록 자체를 세계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KAWAKAMI 전문관은 인식제고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 프놈펜 지역사무소 대표는 잠정목록의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ADMAN 위원장은 유네스코 프놈펜 지역사무소 대표에 동의하며 잠정목록은 신뢰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참가자는 잠정 목록에서도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HARRINGTON 위원장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강조하며 BADMAN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BADMAN 위원장은 문화재 관련 사항은 '보존'이나 '역량개발' 중 '담당 부서'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ENGELHARDT 국제자문관은 전통적인 관행, 무형유산과 관련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보존'이나 '커뮤니티'의 하위항목으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DINGWALL 국제자문관은 BADMAN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른 보존 기구와 연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이슈가 신뢰성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 4) 커뮤니케이션

조효상 주무관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 표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속, 접경지역 유산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지명중인 목록(on-going nomination)' 하위에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대표는 일본 FIT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해달라고 짧게 언급하였다. 말레이시아 대표는 지역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부서와 현장 관리인들을 위한 인터넷 클럽과 관련해서도 협력 가능 '분야'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의 한 대표는 공동유산과 관련한 경험 교류부문에서 티무르 건축과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대표는 공동 유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하위 지역적 이슈로 중앙 및 서아시아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했다.

### 5) 지역사회

DINGWALL 국제자문관은 '의사결정 과정 및 이윤 배분 과정에 지역 커뮤니티 및 주민의 참여를 강화 할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ENGELHARDT 국제자문관은 동의하며 이에 전통적인 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코멘트 후 JING 과장은 전체적인 코멘트를 남겼다. 그는 여러 참석자들의 피드백이 다양한 지역별로 제안되었고 이것이 행동강령의 초안에 충분히 수용되었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 내용은 차후 태평양 지역의 행동강령과 취합되어 세계유산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 단계로 각 당사국 대표 및 자문기구 참석자들이 7월말까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면, 이 역시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당국과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원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 국가별로 어떤 자원 제공이 가능한지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히 아시아지역 대표(캄보디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5명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행동강령 채택

마지막으로 채택에 앞서 의장이 추가 질문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말레이시아 대표는 보존 이슈와 관련해서 관리 계획의 승인은 지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용어 수정을 제안했다. 추가 논의 끝에 '권고 혹은 합법화'로 표기하기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 지역의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 2. 폐회식 (17:45 – 18:00)

### ● 폐회사

첫 순서로, 전택수 사무총장의 폐회사가 있었다. 그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채택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특히 아시아 당사국에 제출해주었던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검토와 토론이 진행된 점을 강조했다.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2012년 제출될 것이라고 그의 의의를 밝히며,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지역 협력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될 현장 답사와 관련하여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에 대해 짧게 소개한 후, 서울의 현장답사에서 방문하게 될 창덕궁과 종묘 또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광주에서 열릴 '아태세계유산도시 시장단회의'와 제주도에서 열릴 'IUCN 총회'를 간략히 소개하며 폐회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JING 과장은 먼저 이번 수원 회의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모두 훌륭하게 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내빈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체계적인 진행과 잘 조성된 회의장 환경에도 감사를 표하며, 3일간의 회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후 그는 이번 회의를 주최, 주관한 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또한 그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 대표들 및 자문기구, 국제자문관들 모두 지역적 문제에 역점을 두어 그 결과가 36차 세션에 성공적으로 보고되고 제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길 당부했다.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경훈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낸 결과를 축하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번 회의가 매우 유용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며, 우리 모두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남은 일정을 즐기며 또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마무리했다.

**12/10(토)**

- **현장답사**

3일 간의 회의 이후 회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수원화성을 답사 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방문한 남한산성에서 북문과 서문, 서쪽 사령부, 남문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다음으로 이동한 수원화성에서는 수원화성 열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본 후, 한국 전통 양궁을 지켜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